

강행보단 절차적 정당성 부각... 도정과 갈등 불가피

총선과 제주 현안 <1> 제주 제2공항

후보지 확정 발표 후 5년간 제주사회 찬반갈등 이어져 선거과정서 이슈로 부상... 여야 후보마다 의견 엇갈려

제주지역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압승으로 끝났다. 후보들은 선거과정에서 공약과 정책발표를 통해 제주 제2공항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 5회에 걸쳐 게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를 제주 제2공항 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제주 제2공항을 연간 949만명 처리를 목표로 계류장·터미널 등을 단계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제2도 항공수요를 오는 2055년 4109만 통행(국내선 3796만·국제선 313만), 운항횟수는 25만7000회로 예측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국제공항은 주공항으로, 제2공항은 부공항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수요의 50%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로 기본계획

고시가 연기된 상태이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보완서에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내용이 미흡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DI)의 의견이 있어 재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2공항 후보지 확정 발표 후 제주사회의 찬반 갈등은 5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제2공항 갈등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핫 이슈로 부각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 도민들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제2공항 건설 강행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동의 전제를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제2공항 예산에 도민 동의를 부대조건으로 달았고,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제주도와 합의해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진중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



사회적 거리두기 투표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5일 제주시 노형동 한라초등학교에 설치된 노형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거리를 두고 줄을 서 있다. 강희만기자

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심화된 도민 갈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중인 추가 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역시 제2공항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절차적 투명성을 비롯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나 문제 제기가 해소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정성철 후보는 오랫동안 도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상당 수준의 검증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공론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선 강행 후 갈등해소를 주장했다. 제주시를 선거구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제2공항은 제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주형 뉴딜정책으로 강행을, 서귀포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도 30년 숙원이자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제2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표심을 파고 들었다.

그러나 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면서 제주 제2공항은 일방적 강행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2공항 강행을 추진하는 제주도정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국난 극복’·‘국정 안정론’에 표심 기울어

총선 의미와 과제

제주정치사에 또다시 새로운 한 획을 그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3석을 모두 휩쓸며 ‘5회 연속 석권’의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문재인 정부 힘 실어줘-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돌발변수에 따른 대면선거 위축 등 유례없는 ‘갑갑이 선거’ 국면 속 치러지면서 여러 이슈가 묻히는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정당과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인 주요 요인이 됐을 것이라 게 중론이다. 결국 도민들은 설욕을 노리며 야권이 내세운 ‘정

보수 결집했지만 모두 낙선... 힘 있는 여당 선택 제주정치사 새로운 한 획 속 네거티브전 재현 눈살 갈등·논란 현안 매듭 지을 적극적 가교 역할 주목

부 심판론’과 ‘여당 견제론’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국정 안정론’을 내세운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기간 민주당은 일부 당원들이 제주시갑 지역구 전락공천에 반발해 집단 탈당하며 분열된 반면 미래통합당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등 ‘월팀’을 구성하며 결집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

곤 후보의 당선은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반영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무당층의 표심 무게중심을 기울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함께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운 만큼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슈였던 4·3의 완전한 해결 및 4·3특별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비방·고발 난무... ‘네거티브전’ 여전=정

책선거가 퇴색된 가운데 ‘네거티브전’은 어김없이 재현됐다. 선거 막바지 상대 비방·고발이 난무하면서 공약은 더욱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이 많은 반면 공약 이행기간, 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 구체성이 부족한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공약들이 남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4·3과 제2공항 등 제주 현안 명쾌한 해결을=4·3의 완전한 해결과 제2공항 건설 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지역의 해묵은 갈등·논란 현안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고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4·3’은 집권여당이 약속한만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당선인들의 주도적인 가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여당의 석권에 따른 야권과의 소통 창구 부재를 채울 적극적인 역할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난 제주도정과 협력도 중요해졌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 투표율 62.9% 잠정 집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투표율이 62.9%로 잠정 집계됐다.

15일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제주지역 선거인 55만4956명(제주시 40만1789명 서귀포시 15만3167명) 중 34만9209명(사전투표 포함)이 투표해 62.9%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주지역 투표율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57.2%보다는 5% 이상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국 평균(66.2%)보다 낮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 68.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68.5%로 뒤를 이었다. 반면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62.4%), 제주가 그 뒤를 이었다.

행정시별로 보면 서귀포시 투표율이 제주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는 25만 1499명이 투표해 62.6%, 서귀포시는 15만 3167명이 투표해 63.8%의 투표율을 보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延州玄氏濟州道親族會 墓祭 및 定期總會公告

庚子年 새봄을 맞이하여 親族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길 祈願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2020년도 入島祖 牧使公 墓祭와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하오니 親族諸位께서는 이웃친족님과 함께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日 時 : 2020년 4월 19일(日) 11시
- 場 所 : 威德 入島祖 墓園 (雨天時는 천막설치 진행)
- 연락처 : 會長 玄聖翊 010-3692-5001
 巨老派會長 昌植 010-3698-0014
 神山派會長 尚眞 010-3699-5264
 羊衣幕派會長 憲禧 010-5309-9701
 中郎將公派會長 明久 010-6866-7247
 總務理事 行福 010-2696-5438

※ 서귀포 친족은 당일아침 9시에 서귀중앙여중 앞 버스로 출발함
 □ 서귀포친족회장 : 현 경 수 010-9691-8670
 □ 총 무 : 현 경 범 010-8242-4770

2020년 4월

延州玄氏濟州道親族會 會長 玄聖翊

그랜드 보청기

정지년 보청기 파격 대할인
보청기전 브랜드 50~60% 대할인!!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캠페인

1.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손씻기
2.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그랜드 보청기는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소방서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